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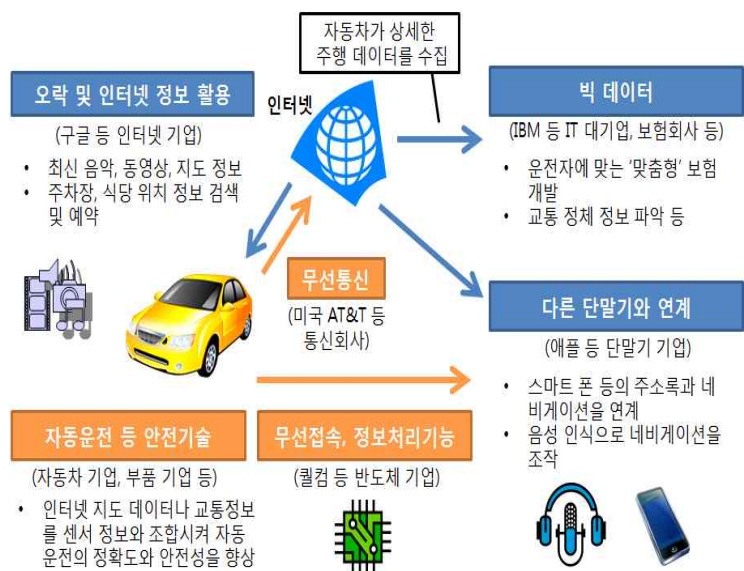
일본 전자업체, ‘스마트 카’ 로 부활

- 자동차의 경쟁요소가 연비나 환경 등에서 IT화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고 있어 편리하고 똑똑한 ‘스마트 카’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
-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운전기술이 가능한 ‘스마트 카’가 등장함에 따라 전기·전자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

□ 자동차와 IT의 융합이 가속화

-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‘스마트 카’ 관련 서비스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IT기업들은 컴퓨터, 스마트폰에 이어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서의 자동차 분야의 개척을 본격화

-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인 로버트보쉬 (Robert Bosch)는 ‘25년까지 자동차가 언제든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스마트폰, 빅 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자동주차 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주행이 가능하도록 진화시켜 나가는 한편, 지도검색이나 음향 기기·에어컨 조작도 음성 인식으로 가능해질 전망



- 구글(Google)은 ‘14.1.6 현대자동차, 아우디(Audi), 제너럴모터스(GM), 혼다(Honda) 등 4대 자동차기업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엔비디아(NVIDIA)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 카 시스템을 개발하는 ‘오픈 오토모티브 연합(OAA: Open Automotive Alliance)’을 결성기로 했다고 발표

- 구글의 OS 안드로이드(Android)를 활용한 자동차용 서비스나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며, 운전자의 시선이나 음성으로 지도검색과 음향기기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예정
- * GM은 미국전신전화회사(AT&T)와 협력하여 '15년에 판매할 쉐보레(Chevrolet)에 고속무선 접속기능을 도입하고, 중국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
- * 아우디도 AT&T와 연계하여 고속 인터넷 기능을 장착한 A3 세단을 판매할 계획
- 애플(Apple)은 '11년부터 무선전송기술 블루투스(Bluetooth)를 자동차에 탑재하여 음성인식으로 아이폰(iPhone)을 조작할 수 있는 Siri Eyes Free를 개발
- 애플은 '13.6월 Siri Eyes Free를 개량한 내비게이션 어플 'iOS in the Car'를 발표하였는데, '14년 탑재를 목표로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페라리(Ferrari), 재규어(Jaguar), 볼보(Volvo), BMW, 메르세데스 벤츠, GM, 닛산, 혼다, 쉐보레 등 OAA 참여기업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있음
- IT기업들이 주도하여 자동운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동차기업들은 독자적으로 IT화를 추진
- 혼다는 어플 개발에 투입되는 코스트를 고려하여 경험 있는 IT기업과 연계하고 있지만, 자동운전 분야는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한다는 방침
- 혼다는 OAA와 Siri Eyes Free 양쪽 연합에 참가하여,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려 자동차 판매를 늘려 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

□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

- 자동차와 IT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주행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텔레매틱스(telematics) 보험 상품이 등장
-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끌며 미국에서 가입자가 300만 명을 돌파, 향후 5년간 2,0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

<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>

구글 등	혼다의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'라이프 라인' 지도를 작성
후지쓰	택시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계획 등에 이용
손보재팬	닛산의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사용하여 요금이 변동하는 개인보험을 판매
NTT도코모 등	소형 단말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를 손해보험회사나 자동차용품 점포 등에 판매

- 후지쓰는 도쿄도내 약 4,000대의 택시로부터 위치와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음
 - 동 정보를 분석, SNS와 연계하여 사람이 많은 장소를 택시나 이동판매 업체에 알려 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
- 자동차가 빅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 것은 '11년 3.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이 발생할 했을 때 도로정보나 가스 공급 등 라이프 라인이나 사람들의 안부 정보 등에 관한 서비스가 잇따라 개발
 - 한국이나 네덜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동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추진
 - 일본기업들이 동 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위협 요인도 있으나, 양국 기업간 협력 가능성도 공존

□ 스마트 카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

- 스마트 카는 전기·전자부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·전자부품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
 - 일례로 충돌예방장치는 고성능 센서나 카메라 화상을 고속 처리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고기능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
- 도시바는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일본국내 공장에서 반도체의 양산을 결정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에도 기대
 - 파나소닉은 스마트폰으로 '문 열고/닫기' '에어컨 켜고/끄기' '자동주차'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'16년 실용화를 목표로 자동차 대기업과 공동개발을 계획
- 내비게이션 관련 기업들은 어플의 등장으로 내비게이션 판매가 축소될 것에 대비,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주력
 - 파이오니아(Pioneer)는 NTT도코모와 공동개발한 차재기(車載器)로 위치나 속도 등 주행 정보를 수집, 분석한 빅 데이터를 자동차용품 점포나 손해보험회사에 제공
 - 자동차의 IT화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상품·서비스 제공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어 이노베이션이 기대됨

□ 시사점

-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부품·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IT화는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
 - 10억대로 추정되는 자동차시장은 IT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겠지만 진입 경쟁도 치열해 것으로 예상
 - 도심 도로에서도 스마트 자동차가 주행하게 되면 도로나 주차장, 상점을 포함한 도시개발산업, 전기산업,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안드로이드 체제의 스마트 자동차가 증가하게 되면 아이폰이 대세인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
 - ‘13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7억 8,120만대 판매되어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10.1% 증가한 78.9%를 차지
 - * 아이폰은 1억 5,340만대(점유율 15.5%), 마이크로소프트(MS) 윈도폰은 3,570만대(점유율 3.6%), 블랙베리의 블랙베리 OS 등(점유율 2%)
 - Siri Eyes Free 기능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동차기업과 스마트폰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
-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에서 한국 업체에 밀렸던 일본 전자업체들이 ‘스마트 카’ 시스템으로 한국 추월을 노리고 있고, 자동차가 빠르게 스마트기기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창출이 예상됨으로 우리 전자업체들도 이 분야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
 - 스마트폰 보급이나 정보통신망 정비 등 일본보다 먼저 IT화를 추진한 우리나라는 IT경험을 활용하면 스마트 자동차 개발 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〈참고자료〉

닛케이신문 Tech트렌드(2014.1.28./29/30), 닛케이신문(2014.1.7, 2.10), 요미우리신문(2014.1.7.), 아시아경제(2014.2.2), 매일경제(2014.1.21)